



시민일보

http://www.siminibo.co.kr/article.aspx?cat\_code=03010000N&article\_id=20100812143300182

유근성 강북구의회 의장

## “더불어 함께” 하는 봉사의 마음 갖고 항상 낮은 자세로 주민의견 수렴하는 소통의 장 만들 것”

“비록 의정, 열린 의정을 실천하는 강북구의회인 줄로라도 강북구민의 삶에 힘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항상 낮은 자세로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소통의 장을 만들어 나가면서 상생(相生)의 의회를 만들겠습니다”

유근성 서울 강북구의회 제6대 전반기 의장은 <시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앞으로의 의회 운영에 대해 이렇게 밝혔다.

이러 그는 “강북구민이 원하는 바를 주민의 눈높이에서 같이 바라보고 현안을 발표 하면서 함께 만들겠다는 마음 자세로 선민과 복지, 교육과 문화, 환경상생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강북구의회 14명의 의원 모두가 초당적으로 모든 역할을 결집할 것을 약속드립니다”고 강조했다.

지역 발전을 위한 구의회의 역할에 대해 유 의장은 “지방자치는 ‘정확한 정보’라는 말이 있듯이 중앙정치와는 달리 지역내에서 주민들과 같이 협력해야 한다”며 “지역이 발전하려면 주민의 애정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더불어 함께’ 하는 봉사의 마음을 늘 견지하고 응징하는 사람이 구의회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선거과정에서 느낀 점에 대해 그는 “봉사의 다수가 다지 털과 트러블을 이용해 마음을 열

고 선거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게 가장 컸다”며 “숨어있는 ‘침묵의 다수’가 바라는 것은 ‘소통과 정책’에 의한 생활정치와 시민복지 분야에 있다는 사실로 나타나 이를 위해 구의회는 집행부와 함께 주민의 삶에 만족도를 높여줬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앞으로 집행부와 의 관계 설정은 “주민의 정책선호도를 고루 반영하기 위해서는 정책의제가 너무 관공적으로 기우는 관공성을 피하기 위해 냉철한 판단에 의한 ‘정책과 집행’을,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과 집행에 대한 ‘감사와 통제’의 기능을, 집행부와 주민간의 의견이 상충할 때는 ‘대화와 조정’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유 의장은 나폴의 방식에 대해서는 “2006년 지방선거에서 낙선한 후 회의와 피플의 날을 보낸 것도 있지만 회의 생각을 적극적으로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 바꿨다”며 “여론 수렴의 가장 좋은 방법은 항상 비공식적이고 상대인의 입장에서 한번 더 이야기를 들어주고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같이 뛰고 있다는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 의장은 인터뷰를 마치면서 주민들에게 “지역주민이 바라는 민의



진용준 기자 yj@siminibo.co.kr

정지 “더불어 함께”하는 봉사의 마음을 갖고 낮은 자세로 주민 의견 수렴하는 소통의 장 만들 것”  
유근성 강북구의회 의장

[시민일보] “비록 의정, 열린 의정을 실천하는 강북구의회인 줄로라도 강북구민의 삶에 힘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항상 낮은 자세로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소통의 장을 만들어 나가면서 상생(相生)의 의회를 만들겠습니다”



유근성 서울 강북구의회 제6대 전반기 의장은 <시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앞으로의 의회 운영에 대해 이렇게 밝혔다.

이러 그는 “강북구민이 원하는 바를 주민의 눈높이에서 같이 바라보고 현안을 발표 하면서 함께 만들겠다는 마음 자세로 선민과 복지, 교육과 문화, 환경상생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강북구의회 14명의 의원 모두가 초당적으로 모든 역할을 결집할 것을 약속드립니다”고 강조했다.

지역 발전을 위한 구의회의 역할에 대해 유 의장은 “지방자치는 ‘정확한 정보’라는 말이 있듯이 중앙정치와는 달리 지역내에서 주민들과 같이 협력해야 한다”며 “지역이 발전하려면 주민의 애정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더불어 함께’ 하는 봉사의 마음을 늘 견지하고 응징하는 사람이 구의회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선거과정에서 느낀 점에 대해 그는 “봉사의 다수가 다지 털과 트러블을 이용해 마음을 열

고 선거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게 가장 컸다”며 “숨어있는 ‘침묵의 다수’가 바라는 것은 ‘소통과 정책’에 의한 생활정치와 시민복지 분야에 있다는 사실로 나타나 이를 위해 구의회의 집행부와 함께 주민의 삶에 만족도를 높여줬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앞으로 집행부와 의 관계 설정은 “주민의 정책선호도를 고루 반영하기 위해서는 정책의제가 너무 관공적으로 기우는 관공성을 피하기 위해 냉철한 판단에 의한 ‘정책과 집행’을,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과 집행에 대한 ‘감사와 통제’의 기능을, 집행부와 주민간의 의견이 상충할 때는 ‘대화와 조정’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유 의장은 나폴의 방식에 대해서는 “2006년 지방선거에서 낙선 한 후 회의와 피플의 날을 보낸 것도 있지만 회의 생각을 적극적으로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 바꿨다”며 “여론 수렴의 가장 좋은 방법은 항상 마음을 열고 상대와의 감정에서 한번 더 이야기를 들어주고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같이 뛰고 있다는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 의장은 인터뷰를 마치면서 주민들에게 “지역주민이 바라는 민의를 집행부의 정책의제로 설정해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노력을 할 것이다. 지방의회와 조례와 예산안 심의, 의결 등의 의사결정체 적극 참여하여 집행부를 감시, 통제하면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응징한 예산 집행이 되도록 하겠으며, 집행부와 지역주민들 사이에 있을 수 있는 어려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이 자리를 빌어 약속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진용준 기자 yj@siminibo.co.kr

기사 등록 일시 2010-08-12 14:33:17 siminibo.co.kr All rights reserved

동북신문

## 수유1동 주민센터 · 수유문화정보센터 개청식 개최

### 지역유지 및 주민 등 150여명 참석, 경과보고 후 시설관람

지역 주민들에게 고품격 문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유1동 주민센터 · 수유문화정보센터가 개청식을 열고 힘찬 첫 출발을 알렸다.

강북구(구청장 박겸수)는 지난 11일 수유1동 주민센터 · 수유문화정보센터 개청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청사 2층 주민마당에서 열린 이날 개청식은 박겸수 강북구청장을 비롯해 유근성 강북구의회 의장, 정양석 국회의원(강북갑), 김정중 시의원(강북구2), 김용욱 구의회 부의장, 박성열 구본승김도연 이백균이성희 구의원 등 수유1동 직능단체, 지역 주민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테이프 커팅, 국민의례, 경과보고, 시설관람 등의 순으로 1시간여 동안 진행됐다.

이날 개청식에서 박겸수 강북구청장은 인사말을 통해 “수유1동 북



▲ 지난 11일 수유1동 주민센터 신청사 개청식이 박겸수 강북구청장, 유근성 구의회 의장 등 강북구 관계자 및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합청사는 주민들의 다양한 문화적 욕구를 최대한 반영해 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만들어졌다”며 “지방자치의 목적이 주민에 대한 봉사인만큼

앞으로도 주민들을 하늘처럼 섬기며 주민이 주인되는 행정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유근성 구의회 의장은 축사에서 “수유1동 신청사 건립을 위해 주민들의 세금 30여억이 들어갔다”면서 “관내 제일 훌륭한 주민센터가 된 만큼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 충족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청사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정양석 국회의원도 축사에서 “그 동안 수유1동은 발전이 덜 된 곳으로 인식돼 왔는데 이제 신청사가 들어선 만큼이 주변이 더 많은 발전이 있을 것”이라면서 “이제 빨래할 도로 조기 착공과 이 지역의 재건축 재개발 등이 빨리 진행되도록 여야 구분 없이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신규 기자 sfmar87@harmal.net)



## 좀더 나은 서비스 약속합니다

### 강북, 수유 1동 주민·문화정보센터 개칭

이금연 기자 / 지역 주민들에게 고품격 문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강북구 수유1동 주민센터·수유문화정보센터가 개칭식을 열고 힘찬 첫 출발을 알렸다. 강북구는 11일 수유1동 주민센터·수유문화정보센터 개칭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청사 2층 주민마당에서 열린 이날 개칭식은 박경수 강북구청장을 비롯

해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 수유1동 지능단체, 지역 주민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테이프 커팅, 국민 의례, 경과보고, 시설관람 등의 순으로 1시간여동안 진행됐다.

한편 이날 개칭식과 함께 수유문화정보센터가 정식 개관했으며, 수유1동 주민센터는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지난 2일부터 업무를 시작했다.

수유동 606-412번지에 위치한 수유1동 주민센터·수유문화정보센터는 지하1층 지상5층(연면적 2,375㎡) 규모로 동 주민센터와 도서관, 자치회관 등 지역내에 부족한 문화, 여가 공간을 갖추고 있어 주민들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청사는 지하 1층 주차장, 지상 1층 민원실 등 동 주민센터로 운영되며 지상 2층은 인터넷 카페, 마을문고 등 주민 여가공간과 도서관영실이 들어서었다.

3~4층은 수유문화정보센터로 17,000권 장서 규모에 어린이자료실, 종합자료실, 일반열람실 등을 갖추고 있으며 5층은 자치회관 문화강좌가 진행되는 강좌실 3곳과 다목적 강당이 위치하고 있다.

박경수 강북구청장은 "수유1동 복합청사는 주민들의 다양한 문화적 욕구를 최대한 반영해 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만들어졌다"며 "지방자치의 목적이 주민에 대한 봉사인만큼 앞으로도 주민들을 하늘처럼 섬기며 구민이 주인되는 행정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일보, 대한매일신문

## 부평구의회, 찾아가는 의정 활동

신은호 의장, 동 주민센터·파출소 방문



인천부평구의회 신은호 의장은 행정의 최일선 기관인 동 주민센터와 차이를 담당하고 있는 일선기관인 지구대, 파출소를 방문, 현장을

살펴보고 직원들 및 주민들과 격의 없는 대화를 나누는 등 생생한 현장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번 기관 방문은 지난 9일 삼산2동을 시작으로 오는 20일까지 22동 및 지구대, 파출소 등 11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현장에서 주민들과 직접 격의 없는 대화 및 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하는 등 다양한 현상이 소리를 듣고 답변한다. 특히 이번 방문은 현장의 소리를 직접 청하고 각 기관의 예로사정과 건의사항 등을 결성하여 '구민과 함께하는 현장중심의 열린 의정'을 펼치고자 하는 신은호 의장의 의지가 담겨 있다.

한편 금번 기관방문시 도출된 예로사정과 건의사항 등은 구 집행기관에 통보하여 대적 마련과 개선방안을 적극 반영하여 줄 것을 주문할 예정이다.

대한매일신문

## 수원시의회, 시민들의 소리코너 운영

### 각종 행정행위 접수·활용

유기서 기자 / 수원시의회(의장 감장봉)는 시민들의 소리코너를 통해 위법과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는 각종 행정행위 등을 접수받아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적극 활용한다고 밝혔다.

오는 11월22일부터 열리는 제278회 제2차 정례회 실시된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관련 9월 한 달 동

안 시의회 홈페이지, 전화, FAX 및 의회방문 등을 통해 접수받는다.

해당사항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 후 상임위원회에 통보해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적극 활용하며 그 결과를 해당 민원인에게 통보한다.

이종후 의회운영위원장은 "시민들의 의견을 의정활동에 반영함으로써, 시민참여 의정을 실현하고자 본 제도를 식시하게 됐다"며 시민의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